

휠체어컬링 '오늘 4강 간다'

패럴림픽 캐나다에 4-6 패 오늘 독에 이기면 4강 확정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2010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에서 세계 최강 캐나다와 마지막 포석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졌다. 한국은 18일(이하 한국시각) 밴쿠버 패럴림픽 센터에서 열린 대회 예선 풀리그 8차전에서 캐나다에 4-6으로 석패했다. 한국은 이로써 예선리그 5승3패를 기록해 2위 미국(6승2패)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한국은 19일 5위 독일(3승4패)과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상대적 약체로 꼽히는 독일을 이기거나 독일이 같은 날 이어 벌어지는 스웨덴과 8차전에서 지면 4강 진출을 확정한다. 주최국가인 세계최강인 캐나다와 경기는 마지막 포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섬세한 작전과

집중력이 대등하기 때문에 초반 엔드부터 경기는 방어에 치중하는 1점 싸움으로 되풀이됐다.

한국은 캐나다의 수비 전략에 말려 1, 2, 4 엔드에 1점을 내줬지만 3엔드에는 1점을 뽑았다. 한국은 1-3으로 뒤진 5엔드에 한꺼번에 2점을 뽑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으나 6엔드에 다시 2점을 내주면서 3-5로 다시 끌려갔다.

사기가 꺾이지 않고 바로 반격에 나선 한국은 7엔드에 1점을 보태 마지막 엔드를 앞두고 4-5까지 따라붙었다.

승부는 마지막 8엔드, 거기서도 마지막 투구에서 같았다. 한국의 주장 김학성이 과녁 중앙에 있는 캐나다의 돌을 쳐내면 2점을 보태면서 역전승을 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마지막 돌은 방어를 위해 과녁 앞에 늘어놓은 한국 돌에 맞고 굴절돼 멀리 벗어나면서 뒤집기 시도는 불발에 그쳤다.

연합뉴스



슈터 김명진 '매서운 눈매' 18일(한국시각) 캐나다 밴쿠버 패럴림픽 센터에서 열린 2010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 휠체어컬링 예선 한국-캐나다전에서 슈터 김명진이 조양현의 도움을 받으며 스톤을 밀어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메시 2골' 바르셀로나 8강

슈투트가르트에 4-0 대승 챔스리그 2회 연속 우승 도전

한국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상대인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의 핵심 선수 리오넬 메시(사진)가 바르셀로나(스페인)를 '꿈의 무대' 8강에 올려놓았다.



바르셀로나는 1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 누에서 열린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VfB 슈투트가르트(독일)와 홈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메시의 활약으로 4-0 승리를 거뒀다.

지난달 24일 1차전 원정경기에서 1-1로 비겼던 '디펜딩챔피언' 바르셀로나는 1, 2차전 합계 5-1로 앞서 8강에 진출하며 대회 2회 연속 우승 꿈을 이어갔다.

8강 진출 팀 중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소속인 바르셀로나가 유일하다. 지난 시즌 9골을 넣어 대회 득점왕을 차지하며 바르셀로나의 우승을 이끈 메시는 올 시즌 7경기에서 4골을 터뜨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7골)에 이어 득점 랭킹 공동 2위로 올라섰다. 레알 마드리드는 8강 진출에 실패해 메시로서는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메시는 사흘 전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와 홈 경기(3-0 승)에서 헤트트릭을 작성하는 등 절정의 득점 감각을 유지하면서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뽐내고 있다.

메시는 경기 시작 13분 만에 단독 돌파로 슈투트가르트의 수비진을 무너뜨리고 선제 결승골을 뽑았다. 9분 뒤에는 페드로 로드리게스가 추가골을 넣어 바르셀로나는 한 걸음 더 달아났다. 메시는 2-0으로 앞선 후반 15분 다니엘 알베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모서리에서 왼발슛으로 다시 골망을 갈라 슈투트가르트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바르셀로나는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4분 보얀 크르키치가 한 골을 더 보태 대승을 마무리했다.

이날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팀은 모두 가려졌다.

연합뉴스

남성 헤어 기능장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최신제품** NAVER 주소(이)대산프리모

SBS·KBC 『사람세상 방영』

가발

초슬림!! **각 50만원~**

스킬과 망이 초극세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용가능장 원장 직접시술

- *여성무모(無毛)전화 인공화로OK!
- *화상 두피합물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 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E-mail: daesangabal.co.kr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 채 011-600-9955

백문대 나주방향 500m

大山프리모가발

(계좌제·재직자)

국비교육생모집

노동부지정 국비 훈련기관

Js퀴진 요리학원

●●● 방문상담 대 환영 합니다! ●●●

훈련종류	훈련과정	훈련대상
계좌제	○ 한식과정 ○ 일식과정	주부,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졸업 예정자
	○ 한식과정 ○ 양식과정 ○ 일식과정 ○ 중식과정 ○ 제과·제빵과정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 (정규직·비정규직)

* 계좌제 과정은 광주고용센터(609-8500)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담전화 ◎ **226-5500**

위치: 요리학원

장동코터리 전남 여교 광주 전라국

공장매매

- 위치: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 대지: 6,345㎡ (1,920평)
- 건물: 1,685㎡ (510평)
- 전기: 계약전력 200kW
- 호이스트: 3+3TON, 5TON(협의)
- 현재: 가동중

연락처: 011-612-2823

이메일: diid71@hanmail.net

광주체고 양학선 2관왕

아시아주니어체조 선수권 링 이어 도마에서도 금메달

광주체고 양학선(사진)이 2010 아시아주니어체조 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지난해 태극마크를 단 양학선은 17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메세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고부 도마 결승에서 15.550점을 획득,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전날 링에서도 14.050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양학선은 대회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전에서



도 한국이 은메달을 차지함에 따라 양학선은 이번 대회에서 금 2, 은 1개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또한 동료 배가람(광주체고)은 철봉(13.975점)과 단체에서 은메달, 안마(13.375점)와 개인종합(84.200점)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중부 경기에서 광주체육중 소속 한소리의 맹활약에 힘입어 한국팀이 단체전 동메달을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00·SBS스포츠), <넥센:롯데>(13:00·MBCESPN)
- ▲KEB 인비타이셔널 골프 2R (14:10·KBS2)
 -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5차전 <KCC:삼성>(19:00·MBCESPN)
 - ▲FK리그 09/10 챔피언 결정전 (19:20·KBSN SPORTS)
- 19일(금)
- ▲금강사자기 고교야구 (12:30·KBSN SPORTS)
 - ▲프로야구 시범경기 <두산:KIA>(13:00·SBS스포츠)